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2.0' 추진... MZ세대 맞춤 혁신

지역 특성 반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민간주도형 청창사 시범 도입
지역 거점 시연회 등 네트워크 확대



‘청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가 MZ세대들을 위해 확보된다.

MZ세대의 흐름을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를 추가로 만든다.

지역의 청년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청창사 입교생들을 위한 네트워킹 시스템도 더욱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민간 창업기반이 열악한 비수도권 창업자를 위해 대전에 ‘민간주도형 청창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영기관이 돼 비수도권 우수창업자를 직접 선발, 육성하고

직접투자나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특히 민간 창업기획자가 투자를 전제로 청창사 입교생을 직접 선발하기 때문에 대전 청창사 입교생 상당수는 졸업과 동시에 민간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청창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전문기관을 영입한다. 민간 기관은 교육 계획 뿐만 아니라 개별 청창사가 초빙하기 어려운 유명강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섭외해 온·오프라인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입교생 코칭의 경우 소수의 내부 전담교수가 실시했던 것을 민간 외부전문가 중심의 1대1 코칭으로 개선해 운영한다”면서 “입교생이 섭외된 민간 전문가 외에 다른 강사를 희망하면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해 다른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의 경우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창업기획자(AC) 등 투자전문기관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글로벌투자 분야를 특화할 계획이다.

또 주요 공단이 밀집한 경기지역은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제조창업 특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북부에는 군장병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한다.

투자와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지역 거점 시연회를 새로 도입해 서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에서도 시연회를 연다.

지역 시연회에서선 비수도권 창업자들이 만나기 쉽지 않은 우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기업 홍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 10개 청창사에서 시행했던 기업홍보활동(IR) 교육을 18곳으로 늘리고, 한국벤처투자와 기술보증기금 등

과의 투자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교자 중심으로 선발 방식을 개선해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기간에 온라인 무료자문을 실시하고, 발표 심사자료도 별도의 자료(PPT)가 아닌 서류심사시 제출한 신청서로 대체키로 했다.

사업비 관리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기계장치 구입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한편 올해 청창사는 875명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이내 대표자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창사는 현재까지 5842명의 창업자를 배출하고, 총 5조768억원의 누적 매출 성과와 1만782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기보, 中企 애로사항 해결 현장 행보

김학도 이사장 엠아이티코리아 방문 “세종 지역 기업 경쟁력 확보 뒷받침”
김중호 이사장 에누마코리아 방문 “소셜벤처 기술평가·보증 복합 지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오른쪽)이 12일 세종시 엠아이티코리아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중진공



김중호 기보 이사장(왼쪽)이 서울 성수동에서 소셜벤처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표적인 두 지원기관 수장들이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나란히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은 12일 세종시에 있는 전기차 부품 제조기업을,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은 전남 서울 성수동에 있는 소셜벤처기업을 각각 찾았다.

중진공에 따르면 김학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량 부품 장비 생산기업인 엠아이티코리아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엠아이티코리아가 위치한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엠아이티코리아는 현대차 제네시스 G80에 적용되는 조향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합금 경량화 소재는 기존 스틸 제품 대비 무게가 40% 이상 줄고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전기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중진공은 내연기관차량 부품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엠아이티코리아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돕고 있다. 이 회사는 중진공, 세종테크노파크가 협업한 지원을 통해 세종시 스타기업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지난해 4월 세종에 출장소를 오픈한데이어 올해엔 이를 격상해 세종지역본부를 정식 출범하고 2월 말 세종 나성동에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세종지역본부를 신규 개소해 세종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사업 전환, 제조공정 혁신 등 세종 지역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도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호 기보 이사장이 전남 찾은 에누마코리아는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셜벤처다.

기보는 지난 2018년에 중기부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아울러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했으며 소셜벤처 전용 보증상품인 소셜벤처임팩트보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김중호 이사장은 “기보는 2019년부터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소셜벤처 실태조사와 소셜벤처 전용 플랫폼인 소셜벤처스퀘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평가와 보증의 복합지원을 통해 소셜벤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보는 올해 소셜벤처임팩트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150억원 늘어난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세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차 접수

이후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당, 카페, 학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PC방, 파티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자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1차 접수는 2월6일까지이며 DB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2월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지급한다.

접수는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접수 첫 날인 17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

시몬스

슈퍼싱글 매트리스 할인

시몬스가 슈퍼싱글(SS) 사이즈 매트리스를 특별 할인하는 ‘슈퍼싱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비즈니스 ‘시몬스페이’를 활용하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확 줄어든다. 시몬스페이는 시몬스가 선보이는 장기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으로 12·24·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해 일일불과 이자 부담 없이 프리미엄 침대를 소유할 수 있다.

12일 시몬스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시몬스 침대로 자녀방을 꾸미려는 학부모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과 함께 누리면 혜택은 더욱 풍성해진다. 슈퍼싱글 사이즈 5% 할인 외에 시몬스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Beautyrest)’ 인기 모델 6% 할인과 ‘얼리버드’ 3% 할인이 더해져 최대 14% 할인된다. /김승호 기자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슈퍼싱글 프로모션은 어린 자녀에게 안심맞춤인 슈퍼싱글(SS) 사이즈 매트리스를 5% 할인한다.

특히 시몬스의 구독 경제 멤버십 서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노바백스 접종, 2월 중순 시작... “교차·3차접종엔 못 써” /사진 뉴시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부친 부검...타살 혐의점 없어



▲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현장 찾은 국토 장관 “위법 사항 엄중 처벌” /사진 뉴시스
▲ 이상직 중형배경 “그룹총수 관대 처벌은 탈법방관 요인 작용”

▲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입장 없어”
▲ ‘이석준 사건’ 피해자 주소, 수원 권선구청 유출 경위 조사